

“홍심 잡아라”…홍명보호, 월드컵 본선 준비 돌입

동아시안컵 용인에서 7일 중국과 개막전·11일 홍콩·15일 일본과 대결
광주FC 변준수·전북 김태현 등 A대표 첫 등판…K리그·J리그 위주 선발

북중미행을 확정된 홍명보호가 이제 본격적인 월드컵 본선 준비에 나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3일 오후 소집해 경기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훈련에 들어간다.
이번 소집은 우선 오는 7~16일 경기도 용인 등에서 개최되는 2025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개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대비하는 첫걸음이다.
한국은 지난달 막을 내린 북중미 대회 아시아 3차 예선을 통해 11회 연속이자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올해 동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는 7일 오후 8시 중국과의 대회 개막전을 시작으로 11일 오후 8시 홍콩, 15일 오후 7시 24분 일본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차례로 대결한다.
이번 대회는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는 대회가 아니라서 해외파를 강제로 차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재성(마인츠), 황희찬(울버햄프턴), 황인범(페예노르트) 등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과 박용우(알아인), 조유민(샤르자) 등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을 부르지 못했다.
대신 K리그와 일본 J리그 소속 선수들로만 선수단을 꾸렸다.
엔트리가 23명에서 26명으로 확대돼 추가 발탁한 주민규(대전), 강상윤(전북), 모재현(강원)을 포함해 23명이 K리그(K리그1 22명, K리그2 1명) 소속이다.
나머지 세 명은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수비수 김태현(가시마 엔트러스), 미드필더 나상호(마치다 젤비아), 공격수 오세훈(마치다 젤비아)이다.
2023년 6월 이후 태극마크와 인연이 끊겼던 나상호는 2년 만에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광주FC의 ‘철벽’ 변준수를 비롯해 장신 스트라이커 이호재(포항), 김태현(가시마), 서명관(울산), 김태현(전북), 서민우(강원), 이승원(김천)에 강상윤, 모재현 9명은 A대표로 뽑힌 게 처음이다.
예선을 치르면서 홍 감독의 월드컵 본선 엔트리 구상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고, 남은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미국 원정에 나설 9월 소집 때부터는 해외파 주축 선수들이 모두 참여할 터라 이번엔 소집된 선수

들에게는 자신의 가치와 경쟁력을 드러내 홍 감독의 마음을 잡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편 남자부는 2003년, 여자부는 2005년 시작한 동아시아컵은 동아시아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로 남녀부 4개국씩 참가해 풀리그로 우승팀을 가린



다.
대회를 번갈아 개최하는 한국, 중국, 일본은 자동 출전하고 남은 한 팀은 예선을 거쳐 결정한다.
올해 남자부는 홍콩이 한자리를 차지했고, 여자부는 북한의 불참으로 대만이 출전한다.

남자부의 경우 우리나라가 5회로 최다 우승국이 다. 직전 2022년 대회에서는 개최국 일본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여자부는 일본이 4회, 북한이 3회 우승했고 우리나라는 첫 대회에서만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6월 무승’ 전남드래곤즈, 최한솔 임대 영입…중원 강화 나선다

울시즌 강원FC서 7경기 출전

전남드래곤즈가 중원 강화를 위해 강원FC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최한솔(28·사진)을 임대 영입했다.
187cm, 81kg의 탄탄한 체격을 보유한 최한솔은 전남대 2학년이던 2018년 서울이랜드FC를 통해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이랜드에서 32경기를 뛰면서 2골을 기록한 그는 2021년 김해FC(K3리그)로 이적했고, 그해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 K4리그 포천시민축구단과 거제시민축구단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갔다.
2023년 7월 소집 해제 후 안산그리너스 유니폼을 입은 그는 2시즌 동안 49경기에 출전해 5득점 2도움을 올렸다.
최한솔은 2025시즌을 앞두고 강원FC로 이적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프리시즌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7경기(K리그1 6경기, 코리아컵 1경



기) 출전에 그친 그는 전남에서 ‘중원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맡게 됐다.
뛰어난 체격을 바탕으로 대인 방어 능력이 좋은

최한솔은 넓은 시야로 3선에서 공을 지키고, 정확한 퐁패스로 후방 빌드업에도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공권에서 감점이 있는 최한솔은 강력한 중거리슈팅을 앞세워 공격 상황에서도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최한솔은 밑에서부터 빌드업을 전개하는 강원 FC의 전술에 맞춰 센터백 역할도 수행했던 만큼 전천후 활약이 기대된다.
새로운 전력을 더한 전남은 5일 오후 7시 홈에서 ‘1위’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무승 탈출을 노린다.
김현석 감독 체제로 새 틀을 짠 전남은 뜨거운 봄날을 보냈지만 지난 6월 4경기에서 승리 없이 3무 1패에 그쳤다. 8승 7무 3패(승점 31)를 기록하고 있는 전남은 득점에서 밀려 부천FC에 이어 4위에 자리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거둬들인 판정 논란에…심판 해설 콘텐츠 ‘VAR ON’ 나온다

심판 판정 기준·판단 이유 등 설명

프로축구 K리그에서 한 주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판정 논란에 대한축구협회 판정 해설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축구협회는 영상 콘텐츠 ‘VAR ON: 그 판정 다시 보기’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VAR ON은 K리그나 각급 축구협회 주관 대회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판정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
논란이 있는 주요 판정 장면을 영상으로 재구성하고 해당 판정의 기준과 판단 이유를 설명한다.
관계자나 팬의 눈높이에 맞게 영상에 대한 분석, 축구협회 심판패널회의를 통해 도출된 판정에 대한 의견 또한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 관계자



VAR ON: 그 판정 다시 보기 <대한축구협회 제공>
의 의견도 넣을 계획이다.
K리그에선 모호한 플레이에 대한 판정이 낡은 논란이 감독 등의 불만 제기로 겹잡을 수 없어 확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축구협회는 현장의 심판 판정 기준과 적용 사례

를 팬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고 구단과 언론, 팬들의 판정 이해도를 높여 판정 신뢰도를 회복하고 오심 논란을 최대한 줄이고자 VAR ON을 기획했다.
또 VAR ON이 심판 개인 역량과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판정 사례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능도 하기를 기대한다.
문진희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이번 콘텐츠 기획은 심판 입장에서 사실 매우 부담되는 결정”이라면서 “축구계 관계자와 팬들에게 전문가의 시선을 안내하고 이해도를 높여 상호 신뢰 문화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VAR ON은 축구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꺾고 클럽월드컵 8강행

가르시아 결승골로 1-0 승

스페인 프로축구 강호 레알 마드리드가 유벤투스(이탈리아)를 꺾고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8강에 올랐다.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는 2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후반 9분 곤살로 가르시아의 헤딩 결승골로 유벤투스에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몬테레이(멕시코)를 2-1로 꺾은 도르트문트(독일)와 5일 오전 4시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

디움에서 준결승행을 다룬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해 6월 2023-20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에서 만나 2-0으로 승리했던 도르트문트와 1년여 만에 재결돌하게 됐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에 완패하며 UCL 우승 트로피를 내줬던 도르트문트는 ‘리벤지 매치’의 기회를 얻었다.
클럽월드컵 8강전은 플루미넨시(브라질)-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 파우메이라스(브라질)-웰시(잉글랜드-이상 5일), 파리 생제르맹(프랑스)-바이에른 뮌헨(독일), 레알 마드리드-도르트문트(이상 6일)의 대진으로 완성됐다. /연합뉴스

조선대·광주여대, 전국대학배구대회 우승 도전

조선대, 성균관대에 3-1·광주여대, 목포과학대 3-2 꺾고 결승 진출

조선대와 광주여대가 2025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고상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조선대가 2일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성균관대와의 남대부 준결승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28-26, 22-25, 25-23, 25-23)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조선대는 접전 끝에 1세트를 가져온 뒤 2세트는 성균관대에 내줬지만 이어 3·4세트를 25-23으로 마무리하면서 결승 티켓을 차지했다.
A조 2위를 차지하면서 연맹전 첫 4강 진출에 성공했던 조선대는 결승무대까지 밟게 됐다.
조선대는 3일 오후 2시 인하대를 상대로 우승을 다룬다.

여대부 결승은 3일 오전 11시 광주여대와 경원대의 대결로 전개된다.
B조 2위 광주여대는 A조 1위 목포과학대의 준결승 승부에서 폴세트 접전 끝에 결승행을 확정했다.
1세트를 25-23으로 마무리한 광주여대는 2세트는 20-25로 내줬다. 3세트에서는 스코어를 바꿔 승리한 광주여대는 4세트에서 목포과학대 기세에 밀려 19-25로 졌지만, 15-12로 5세트를 챙기면서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A조 2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던 호남대는 2명의 부상 선수가 발생하면서 경원대와의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기권했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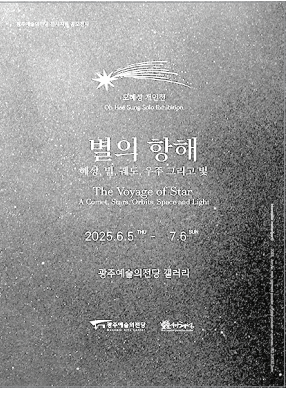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발레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

일시 / 장소 :
2025-06-14(토) 16:30, 19:00 / 상무시민공원
2025-06-21(토) 16:30, 19:00 / 쌍암리근공원
2025-06-28(토) 16:30, 19:00 / 상무시민공원
2025-07-04(금) 19:00 / 교통문화연수원

문의 : 062-522-8716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공모전시
별의 향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06-05(목)~2025-07-06(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